천만그루 정원 조성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전주시,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출범… 자연 · 인간 공존 등 선언문 낭독
식목일 앞두고 동서학동 산성천 일대 쌈지공원에 나무 2160본 심어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을 본격화 한다.

시는 2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조경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2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연 뒤 코끼리 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동서학동 쌈지공원에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도 가졌다.

추진위는 이날 발대식에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지향점을 밝히는 '정원도시 선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전주가 추구하는 정원도시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원도시 △생명의 다양성을 품어 안는 생태적인 정원도시 △꽃과 나무와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도시 △나무가 바람이 되고 그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정원도시라는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동서학동 산성천 일대에서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이곳 주민과 코끼리 유치원 아이들,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애국화조성봉사단원 등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함께 '제74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갖았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소 시민과 관광객이 산책코스로 즐겨 찾는 동서학동 산성천 일대 쌈지공원에 무궁화 60주와 남천 40주, 화살나무 100주, 산철쭉 600주 등 수목 12종 1,165그루와 초화류 4종 2,160본을 함께 심었다.

추진위는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언론, 문화·복지·도시재생, 기업 및 자생단체 등 8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자생단체위원회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관련 행정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며, 시민소통위원회와 자생단체위원회는 시민참여사업 발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민헌수운동 전개 등 역할을 맡아 수행할 예정이다.

정명운 천만그루 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전주시의 역점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힘을 한데 모아 전주시가 지향하는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미래의 꿈인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천만그루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다면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시민과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맘껏 숨쉴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의정비 인상안 가결… 시민단체 "주민 무시 처사"

완주군의회 조례개정안 만장일치 통과에 참여연대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

과도한 의정비 인상률에 대해 군민에게 질타를 받던 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안을 가결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성명을 냈다.

완주군의회는 19.5% 올리는 의정비 관련 조례개정안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정비심의위가 처음 결정했던 인상률 21.15%보다 낮춘 것이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처음 제출되었던 수정안 18.65%보다는 오히려 높게 결정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데다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제멋대로 결정했다.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과 당시 수정안 18.65%를 모두 부결한 군의회가 원안보다 인상률을 약간 낮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정비 인상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22.5%로 제시하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군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21.15% 올리려던 원안 대신 5만원을 낮춰 18.65% 인상하는 수정안을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가 나와서 해당 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내리치는 실수를 해 원안인 21.15% 인상안도 동반 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연대는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에 대한 결자해지의 자세로 오늘 통과된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 등의 과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세대소통과 혁신 부르는 음악의 가치'

전주시,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초청 열린시민강좌

제189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6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시민강좌에는 대중음악평론가로 잘 알려진 임진모 강사를 초청, '대중음악, 소통과 혁신'을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내외경제 기자를 거쳐 음악평론가로 28년째 활동 중이며, KBS '배철수의 음악캠프'와 TBS 교통방송 '임진모의 마이웨이'를 진행하며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임 강사는 이날 방탄소년단과 조용필, 퀸(Queen) 등 다양한 대중음악가의 사례를 통해 대중음악이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양한 세대에 걸쳐 소통하고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설명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임 강사는 특히 △방탄소년단의 파죽지세 △모든 걸 음악에 걸기에 조용필은 가왕이다 △평단과 대중의 간극에 시달린 퀸에 대해 소개한 뒤 "음악이 세대갈등을 풀고 세대 동행으로 향하게 하는 최적화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임 강사는 끝으로 "꿈, 열정, 신념은 변하지 않는 청춘가치의 결실"이라며, "나이를 막론하고 새로운 나, 또 다른 나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 있다면 세대간 격차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열린시민강좌에서는 문화공연으로 중화산2동 주민자치센터의 수준 높은 기타 연주가 펼쳐졌으며 강좌 후 토크 시간에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톡톡(talk talk)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강좌에 이어 다음 강좌는 오는 4월 9일 '행복한 자기건강법, 나이야 가라'를 주제로 한 김오곤 한의사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바이오활성소재 산업화 기술지원사업 성과전시회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기술지원사업이 상품화와 제품고급화로 연결돼 전북지역 바이오뷰티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양원 전주부시장, 이하 연구원)은 26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기술지원사업 관련 유관기관과 지자체 연구소, 수혜기업, 사업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활성소재 천연물식의약소재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의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원의 성분분석과 특허 및 인증 지원, 제품고급화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를 낸 전북지역 18개 기업의 57개 성과제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으로 ㈜그린팜푸드와 (유)서해농산은 연구원의 제품고급화 지원을 받아 각각 한우장조림과 식용귀뚜라미를 활용한 고단백 저지방 건강식품인 '크리켓벨리'를 출시했다.

또한 라미팜 주식회사와 ㈜아토규앤아이도 연구원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받아 골드 크리켓과 딸기랑 뷰티 콜라겐 제품을 출시했다. ㈜유화당도 기술지도 지원을 받아 들기름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연구원은 향후에도 바이오뷰티개발센터를 통해 전북지역 식품·화장품 기업들에게 성분분석과 특허 및 인증, 제품고급, 산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기업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상춘객맞이 총력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완산공원 꽃동산 개화기를 맞아 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완산구 각 부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춘객맞이에 총력을 다한다고 26일 밝혔다.

완산구는 올해에도 완산 꽃동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 꽃동산 주변 취약요인을 사전 보완, △꽃동산 관리 운영 △불법주정차·노점상 대책 △완산공원 꽃동산 진출입로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도로인도 및 도로시설물 점검 등 안전에 대해 각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요인 보완과 현장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4월 8일 우리소리 배움 교실 운영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소리를 쉽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우리동네 소리꾼' 문화사업을 추진한다.

'동네방네 전통문화의 싹을 틔우자'라는 취지로 4월 8일부터 7월말까지 완산구에서는 소리 배움 교실을 연다.

이번 사업은 완산구 관내 14개소(경로당 11개소, 주민센터 2개소, 전주시노인대학)에서 4개월에 걸쳐 판소리, 민요, 서도소리 배뱅이굿 등 우리 소리 배우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완산구는 3월 말까지 장소선정을 마무리한 후 4월 8일부터 청년 예술가들이 경로당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소리 무료강습을 진행하고, 전주시노인대학은 자체 프로그램 개강에 맞춰 4월18일부터 월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공사장 소음 때문에' 구청서 목검 휘두른 50대 구속

공사장 소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 공무원을 목검으로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모(5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청에서 공무원 B모(30)씨를 목검으로 수차례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목검의 날이 무뎌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구청 공무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는데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러 왔는데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목검을 미리 준비한 데다 민원실이 아닌 구청장실로 향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공무원에게 소음 때문에 이가 아프니 임플란트를 해달라는 등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관공서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한 범행의 질이 좋지 않아 구속수사 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도내 최근 3년간 화물차로 221명 숨져

교통안전공 전북본부, 교통사고 감소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서 후부반사판 보급… 주간 16.3%, 야간 21.2% 사고감소 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한상윤)는 정부의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을 맞아 최근 증가 추세인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점검 및 후부반사판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26일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하행선)에서 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북화물공제조합, 교통봉사단체 등과 함께 불법구조변경, 운행기록분석을 통한 휴게시간 준수여부 및 화물차 운전자격 적격여부 등을 점검하고 더불어 후부반사판 및 졸음운전 예방용품(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등을 배부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정례적으로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물차 후미추돌 예방을 위한 후부반사판 부착 행사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나, 화물 적재 및 하역의 반복 등에 따라 훼손되거나 탈색 등으로 인해 반사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 조사에 따르면 후부반사판을 부착할 경우 주간 16.3%, 야간 21.2%의 사고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북도에서 최근 3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로 221명이 숨졌으며, 작년 한 해 동안만 76명 사망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고속도로에서 20%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되어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공단 한상윤 본부장은 "화물차는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고 사고 시 대형사고 등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경찰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거버넌스를 통하여 화물차 사고 감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법운행행위 단속 및 후부반사판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사고예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문화예술활동 커뮤니티 운영

문화파출소 덕진서 31일까지 '문파아트써클' 모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 오는 31일까지 문화파출소 덕진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문화예술활동 기반의 커뮤니티(동아리) '문파아트써클'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파아트써클'은 문화파출소 덕진의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모여 재미난 궁리를 하는 5인 규모의 커뮤니티 동아리며 분기별 선정으로 진행된다.

'문파아트써클'에 선정된 4~5개 팀은 최대 8주까지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한다. 단순 기술 습득·향상 차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자가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 공유와 환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써클당 1~2명의 '커뮤니티 메이커(Community Maker)'를 선정해 분기별 커뮤니티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들은 워크숍과 정기적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과도 연계점을 찾아 커뮤니티 활동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문화파출소 덕진은 '문파아트써클'로 다양한 주민 동아리 발굴과 문화예술 커뮤니티 리더 양성을 통해 전라북도민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문화파출소는 정기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의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문화파출소 덕진의 소식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과 문화파출소 덕진 문화보안관(063-713-07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서 현금 훔친 50대 검거

은행 ATM기 위에 있던 수첩과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산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모(5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경 전주시내 한 은행 ATM기에 B모(55)씨가 두고 간 수첩과 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